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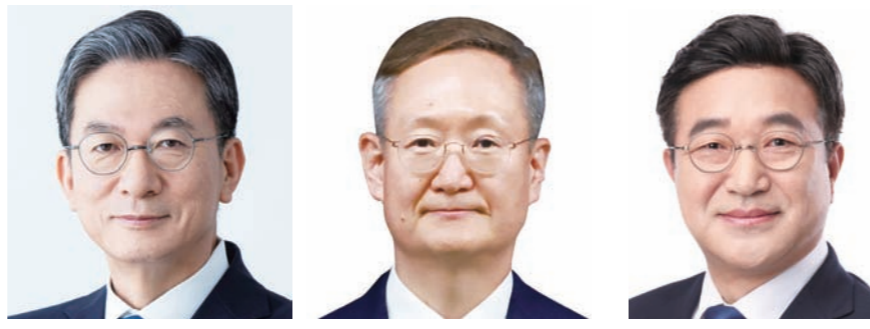
‘明心’ 업은 정성호·봉욱·윤호중... 사법 개혁 ‘드라이브’

〈법무 장관 후보자〉

〈민정수석〉

〈행안 장관 후보자〉

이재명정부 검찰 개혁·수사권 조정 ‘중심축’ 부상
鄭, 李와 40년 지기 최측근... 실무 중추 역할 맡을 듯
奉, 검찰 기획동으로 정동·尹 경찰 권한 조정 주도



정성호

봉욱

윤호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2차 개각은 검찰 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드라이브 선언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한 이른바 ‘정성호-봉욱-윤호중 라인’은 수사·기소권 분리과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는 이재명 정부 개혁 구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던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123 사태’로 상징되는 권력기관의 왜곡된 작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약 40년에 걸친 정치적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 실무 맡게 됐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장을 역임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검정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전반을 주도해왔다.

특히 202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이 좌초됐을 당시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던 그는, 이번 법무

부 장관 지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 기도가 이후 무너진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소 독립성 강화, 수사절차법 제정 등 공약 이행의 실무 총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는 검찰 조직의 문화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획동’으로 꼽힌다. 수사, 기획, 법무 행정 전반에 정통한 그는 검찰 내부의 논리와 저항 요인을 이해하고 있어 제도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이 비검찰 출신 대신 그를 선택한 배경도 이러한 실무 능력에 있다.

정치적 색채보다는 제도 운영 역량을 중시한 인사로, 정 후보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유기적인 개혁 추진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후보자가 개혁의 큰 틀을 설계한다면, 봉 수석은 제도의 작동 원리를 조율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구조다.

윤호중 후보자 역시 참여정부와 문 정부 시절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깊이 관

여한 경험이 있다. 경찰청, 자치경찰, 지방행정을 아우르는 행안부 수장으로서는 경찰 권한 조정과 권력기관 간 견제 체계 정립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검정 수사권 조정’의 설계자이자 ‘친문·친명 통합형’ 인사로 분류되는 윤 후보자의 기용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국정원·자치경찰 등 전체 권력기구 개혁을 조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권 내에서는 실용 중심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난달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형제’처럼 신뢰하는 인물”이라며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설계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도 “정 후보자는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봉욱 수석 시절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깊이 관

내부를 꿰뚫고 있어 정 장관과 손발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차관에 지명된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두고 ‘친윤 검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성호-봉욱 체제하에서는 개혁의 큰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른바 ‘정성호-봉욱-윤호중’ 체제는 법무부-대통령실-행안부를 삼각축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인선으로 해석된다.

이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기능은 외부의 독립 기관으로 이관하는 구조다. 여기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검사 징계 제도 정비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김진강 기자 hjk2156@skyedaily.com

배달의민족 15년... 주문 65억 건·거래액 153조 돌파

배달의민족(배민)이 출시 15주년을 맞았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5년 동안 배민 앱에서 발생한 누적 주문 건수가 약 65억 건에 달하고, 누적 거래액(GMV)은 약 153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배민은 2010년 6월 25일 음식점 전단지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해 외식업계의 비효율적인 광고 구조를 개선하며 성장해왔다. 업주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고, 소비자에게는 간편한 주문 경험을 제공하며 음식 배달 문화를 혁신했다.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장해 온 배민은 이제

외식업주 120만 명 참여... 월간 주문 건 50배 증가
“배달 생태계 지속성장 위한 노력 꾸준히 실천해”

‘음식 배달’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즐겨 쓰는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했다.

배민의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2년 12월 배민의 월간 주문 건수는 200만 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1년 8월에는 처음으로 1억 건을 돌파하며 약 9년 만에 50배 성장했다.

현재까지 배민에서 이뤄진 누적 주문 건수는 약 65억 건에 달한다. 연간 거래액도 2015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늘어

나 올해 기준 누적 153조 원을 넘어섰다.

배민에 입점을 한 외식업주는 지금까지 누적 약 120만 명에 달한다. 월간 방문자 수는 2012년 약 100만 명에서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는 배달 2100만 명(월간활성사용자 기준)이 넘는 사람들이 배민을 이용해 약 30여만 곳의 가게에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배민은 업주와 소비자의 배달 부담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3년 ‘알뜰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도심 내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 딜리 로봇을 도입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마트를 포함해 정보·소싱을 강화하는 등 단순 음식 배달을 넘어 더 빠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배민은 2030년까지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투자를 추진하는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움 약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식업주의 체계적인 가계 성장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안전한 라이더 배달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배민은 정부·업계와 협력을 통해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상생 방안도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는 배달 플랫폼 4사와 입점업주단체·공익위원·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최저 2%~7.8%의 상생요금을 시행하며 영세업주의 부담 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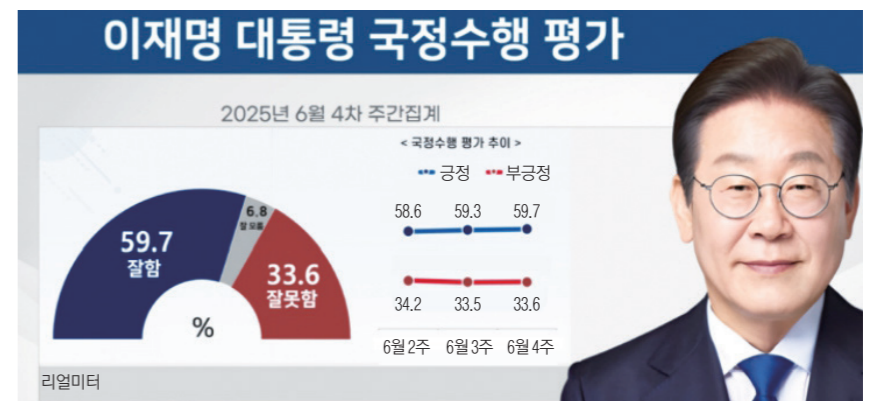
이달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입점업주 단체 등과 추가 상생 중간합의안을 발표하며 주문금액 1만5000원 이하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등 차등을 시행해 배민 이용 업주의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한 그릇’ 배달 문화를 활성화에도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3년 동안(2022년~2024년) 약 50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특히 202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배달 플랫폼 최초로 재정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배민은 이달 25일 출시 15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전사 행사를 개최하고 새로운 미션과 목표를 발표했다.

새롭게 내건 미션은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무언가를 빠르게 배달해 감동과 순간을 제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는 목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TK 50.1% “후 국정운영 잘한다”

민주 50.6%·국힘 30.0%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60%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6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3주차 대비 0.4%p 상승한 59.7%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3.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6.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첫 주경관 시간연설 △주담대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광주 현상 방문 등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과 과감한 인사 △현장 소통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 긍정적 작용한 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 △노태우 정권하의 불참 △법사위 등 국회 내 갈등 등 인사 및 외교 현안 △야당의 정치적 갈등의 부정적 여인이 긍정평가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이 대통령 지지도는 광주·전라가 79.0%로 가장 높았고,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구·경북(50.1%), 서울(53.5%)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를 웃돌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76.0%, 50대 71.9%, 60대 58.0%, 30대 50.9%, 70대 이상 50.2%, 20대 45.6%로 나타나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60.4%였고, 진보층은 87.9%, 보수층은 32.7%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작년 12월 3주차(50.3%) 이후 약 6개월 만에 50%대로 올라섰다.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가 17.0%p에서 20.6%p로 더욱 벌어졌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강 기자 hjk2156@skyedaily.com

스카이 만평 김용덕

재명은행
외국인용
내국인용
중국어인 부동산 대출 환영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治人治世 선미디어

고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

황종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